



체제 전환기의 중국 노동시장의 형성과 발전

장영석 (성공회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 중국 노동시장 형성 과정

중국의 노동시장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형성·발전되고 있다. ‘노동력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전통적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노동력은 상품이다’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대체되기까지, 노동시장 확립에 필요한 새로운 고용제도와 임금제도를 확립하기까지 중국 사회는 적지 않은 논쟁과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다. 지난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현재의 노동시장은 과거 전통적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확립되었던 각종 제도의 영향으로 여전히 불완전하고 폐단이 있기 때문에 좀더 제도적으로 보완되고 건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과거 전통적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하에서의 중국은 방대한 농촌 인구 때문에 독특한 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 산업화 및 도시화의 정도가 낮아 방대한 농촌 인구를 흡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무엇보다 농촌 노동력의 도시 유입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농민과 도시민을 구분하는 호구제도와 집단농장인 인민공사(人民公司) 체제 확립을 통해 농촌 노동력의 도시 유입을 통제할 수 있었다. 또한 그 이유가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중국 당국은 구소련이나 동구권과 달리 도시 내부에서도 노동력의 이동을 엄격하게 통제해 왔다.

노동력 이동을 금지하는 한편, 중국 당국은 ‘노동력을 국가가 통일적으로 할당하는’ 소위 ‘통포통배’(統包統配) 제도와 ‘한 번 배치하면 종신 고용되는’ 소위 ‘고정공’(固定工) 제도를 채택했다. 이 같은 제도하에서 기업은 자신의 수요와 무관하게 국가가 할당하는 노동력을 수용해야 했다. ‘노동자계급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인해 기업이 해고를 행사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뒤따랐기 때문에 기업은 잉여노동력을 안게 되었다. 한편 개별 노동자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이라도 기업과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직장을 바꿀 수 없었다. 그 결과 전통적 사회주의 체제하의 중국은 실업 없는 사회를 실현했지만, 노동력의 비효율적인 배치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전반적 저하라는 심각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당국은 통포통배 제도와 고정공 제도의 폐해를 극복하는 일련의 개혁정책을 내놓았는데, 이는 중국에서 노동시장이 형성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중국 당국은 노동제도 변화가 야기할 수 있는 정치적 과장을 고려하여 고용제도 개혁정책을 아주 점진적으로 내놓았는데, 이로 인해 중국에서 장기간에 걸쳐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중국의 노동시장 형성의 계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농촌의 잉여노동력을 토지의 속박으로부터 해방하는 정책이다. 개혁개방 직후 인민공사 체제를 해체하고 개별 농가에 토지를 장기간 임대·경영하는 ‘농가 청부 경영제도’를 채택했다. 토지의 속박에서 해방된 농촌의 잉여노동력은 유동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상당 부분은 점차 농촌과 도시의 ‘자영업(個體戶)’, 향진기업, 외자기업, 합자기업 등 소위 비공유제의 비농업 부문으로 흡수되었다. 그러나 농민과 도시 시민을 구분하는 호구제도는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의 비농업 부문에 흡수되었던 농촌의 잉여노동력은 임금과 사회보장 면에서 도시 시민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그 다음, 도시 노동력의 유동을 가능케 하는 일련의 정책이다. 개혁개방 직후 국가의 통일적인 노동력 배분 정책이 근본적으로 동요되었다. 문화대혁명 당시 ‘기층대중에게 배우라’라는 마오쩌둥(毛澤東)의 구호에 따라 농촌으로 내려갔던 수많은 도시 청년들이 문화대혁명이 종결된 직후 일시에 도시로 귀환하자 중국 당국은 이들에게 일자리를 배분할 능력이 없었다. 중국 당국은 “노동 부문이 직업을 소개하고, 자신이 취업을 조직하며, 스스로 취업을 모색하는 방법을 결합한다”는 소위 ‘3결합’ 정책으로써 그 난국을 타개하고자 했는데, 사실상 3결합 정책은 정부 당국이 노동력 수급의 주체임을 스스로 포기한 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1980년대와 1990년대 걸쳐 국유기업의 경영 자주권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도시 국유부문의 노동력 유동을 가능케 하는 일련의 정책이 도입되었다. 1986년에는 근로계약제(勞動合同制)가 도입되기 시작했고, 1994년 노동법 제정을 계기로 근로계약제가 전면화 됨에 따라 ‘고정공(固定工)’ 제도도 점차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고정공제도가 근본적으로 타파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정책이 심화됨에 따라 국제적인 경쟁 압력

을 강하게 받게 된 국유기업은 1990년대 중·후반기부터 구조조정을 심화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대량의 국유 부문의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었다.¹⁾ ‘철밥통(鐵飯碗)’이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진출입 장벽이 두터웠던 국유 부문에서 이루어진 대량감원 조치는 중국의 노동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립되기 시작한 신호로 볼 수 있다.

■ 중국 노동시장의 특징 및 단위에서의 실천

중국 노동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방대한 인구 기수와 노동인구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노동력 공급이 수요를 과다하게 초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 제5차 인구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중국 인구는 12억 8,533만 명으로 그 중 15~64세 인구는 70.15%에 달한다.²⁾ 제5차 인구센서스 자료에 근거하여 노동인구 증감 추세를 예측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표 1>에서 나타나듯이 15~65세 인구는 2006년까지 매년 1,000만 명 이상씩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6년을 변곡점으로 그 증가 추세가 둔화하고 2017년부터는 그 절대수가 감소하기 시작한다.³⁾

한편,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취업자수는 최근 몇 년 동안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증가 폭이 매우 둔화되고 있는데,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625만 명, 575만 명 증가했을 뿐이다. 이 같은 고용 확대 폭으로는 기존 실업자는 커녕 신규 노동인구조차 흡수하기 힘들다. 가령, 한 보고서는 2005년 노동력 공급은 신규 노동인구 1,200만 명 가운데 900만 명, 2004년 말 도시 등록실업자 890만 명, 국유기업 구조조정에서 퇴출되는 300만 명, 2004년 말 현재 재취업센터에 남아 있는 300만 명을 합쳐 2,324만 명인 데 반해, 노동력 수요는 고용탄력성 지수를 0.13으로, 경제성장률을 8.5%이라고 가정했을 때 830만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력 공급이 수요를 훨씬 초과한

1) 국유기업수는 1995년 29.1만 개에서 2001년 17.4만 개로 급감했고, 동 기간 국유기업 노동자수는 7,544만 명에서 3,809만 명으로 급감했다. (張春霖, 「國有企業改革的新段階：調整改革思路和政策的若干建議」, 『比較』, 제8집, 2003, p.17.

2) 國務院人口普查辦公室, 國家統計局人口社會和科技統計司編, 『2000年第五次全國人口普查主要數據』, 中國統計出版社, 2001, p.8.

3) 張車偉, 「擴大與促進就業的思路與對策」, 陳佳貴, 王延中 主編, 『中國社會保障報告(2001~2004)』,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4, p.159 ; 장영석, 「중국의 경제성장과 도시 실업문제」, 『한국과 국제정치』, 제21권 제1호, 2005, p.144.



다고 지적하고 있다.⁴⁾

노동력 공급 과잉은 중국의 노동시장을 왜곡하는 중요한 근원이 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개혁개방 이후 노동력 이동을 촉진하는 일련의 고용제도를 도입했지만, 도시 부문의 노동력의 공급 과잉을 억제하기 위해 여전히 호구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있다. 현행 호구제도하에서 농촌 노동자는 도시의 영구적 거주권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노동력 유입이 심한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본 지역 노동자의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 타지역 노동자의 본 지방 취업을 제한하는 정책을 펴기 때문에 농촌 노동자의 도시 취업은 제약된다.

또한 호구제도는 ‘도시 부문에 취업한 농촌 노동자’(이하 ‘농민공’이라 함)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는 원인이 되고 있다. <표 3>에서 나타나듯이 농민공의 시간당 임금은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도시 노동자의 58~80%밖에 되지 않는다. 농민공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사회보장 및 기업복지 혜택까지 고려한다면 도시 노동자와 농민공의 실질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노동력 공급 과잉으로 도시 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수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중국의 도시 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수와 관련해서는 여러 분석 자료가 있지만, 본문에서는 ‘도시 취업자수’와 ‘단위 취업자수’의 차이를 통해 그 규모를 측정하고 있는 한 연구보고서⁵⁾의 견해를 따르고자 한다.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국가통계국이 1996년부터 25만 명의 노동인구를 표본으로 하여 도시 취업자수를 얻지만, 단위 취업자수의 경우 ‘노동통계 보고제도(勞動統計報表制度)’에 근거하여 각 단위가 보고하는 취업자수를 취합하여 얻는다. 1990년대 전반에 걸쳐 단위 취업자수는 감소했지만 도시 취업자수는 증가했는데, 감소한 부분은 정규직 취업이고 증가한 부분이 바로 비정규직 취업이라는 것이다. 두 통계 수치의 차이는 1990년부터 발생하여 시간이 갈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다.⁶⁾ 1990~2003년 비정규직 취업자수가 도시 취업자수에서

4) 楊宜勇, 「2004~2005年我國就業形勢豫測與對策建議」, 劉國光 等 主編, 『2005年中國經濟形勢分析與豫測』(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4~2005년 실제 총취업자수와 도시 취업자수는 각각 625만 명, 855만 명밖에 증가되지 않았다. 본문의 계산법에 의한 노동력 공급 예측치가 정확하다면 당해 연도 노동력 공급 과잉은 위의 계산법보다 더욱 심각하다.

5) 蔡昉·都陽·王美艷, 『中國勞動力市場轉型與發育』, 商務印刷館, 2006, 제5장

6) 1990년 이전 도시 총 취업자수는 단위 취업자수와 등록된 사영기업 및 개체 취업자수의 합으로 계산되었다. 1996년 이후부터 그 수치는 전국에 걸쳐 도시 노동인구 25만 명의 호주 표본조사를 통해 얻어진다. 한편 대부분의 지역은 모집단 조사를, 일부 지역은 표본조사를 통해 단위 취업자수를 노동보장부에 보고한다. (蔡昉·都陽·王美艷, 『中國勞動力市場轉型與發育』, 商務印刷館, 2006, p.76.

차지하는 비중은 13.6%에서 38.6%로 증가했고 2003년 그 수는 9,900만 명에 달한다.⁷⁾ 도시 실업자 중 재취업자 및 농민공의 상당수는 이처럼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직에 흡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필자가 한국노동연구원이 발주한 ‘동북아 제조업의 분업구조와 고용관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2004~2006년간 중국의 전자 및 자동차 제조업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생산 현장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0~65% 정도씩 고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체로 농민공·노무공 등으로 불리는데, <표 3>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이들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58~80%밖에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 노동자들이 누리고 있는 사회보장 및 기업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적 대우도 문제이지만, 중국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좀더 심각한 문제는 단기 고용관행이 보편화되어 있어 고용 불안정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이다. 기업마다 1~4년 등 근로계약 기한의 편차가 있지만,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중국총공회의 경우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 또 그간 비정규직 노동자는 총공회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기 때문에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중국 당국은 2007년 6월 29일 근로계약법 제정을 통해 단기계약에 따른 다양한 폐해를 시정해 나가려 하고 있지만 법 제정의 효과에 대해서는 좀더 관찰이 요구된다.⁹⁾

7) 蔡昉·都陽·王美艷, 『中國勞動力市場轉型與發育』, 商務印刷館, 2006, p. 80. 차이팡 등은 도시 비정규직 노동자수를 ‘도시 취업자-(단위 취업자 수+도시 사영 및 개체 취업자수)’ 공식을 통해 획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각 연도 중국 노동통계연감을 통해 다시 계산하면 2003, 2004, 2005년 도시 비정규직 노동자수는 각각 9,747만 명, 9,862만 명, 9,700만 명이다.

8) 조성재 등, 『동북아 제조업의 분업구조와 고용관계 I, II, III』, 한국노동연구원, 2005, 2006, 2007, 각각 p.229, pp.230~231, p.110.

9) 근로계약법 내용에 대한 분석은 다음을 참조. 백승욱, 「후진타오 시대 중국 노동관계의 변화-노동계약법 도입 과정을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제9집 제1호, 2007; 장영석, 『지구화 시대 중국의 노동관계』, 폴리테이아, 2007, 제8장.

■ 노동시장 발전의 장애 요인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노동시장은 한편으로 중국 당국의 장기간에 걸친 고용제도, 임금제도, 사회보장제도 개혁으로 서서히 발전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형성되었던 제도적 영향 때문에 그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발전 정도는 노동력 이동 정도와 인적자본에 대한 보상 정도 두 가지를 통해 측정해 볼 수 있다.

우선, 노동력의 이동 정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만약 노동력 이동을 통해 소득 수준을 개선할 수 있다면 노동력 이동의 장애 요인이 존재하더라도 노동자들은 각종 수단을 통해 이동하게 된다. 농촌 노동자들이 호구제도라는 제도적 장벽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로 꾸준히 대량으로 유입해 들어갔던 것은 소득 수준을 개선하고자 한 강렬한 욕구 때문이었다. 2000년 제5차 인구센서스의 0.95% 표본조사 자료에 따르면, 1995년 11월 1일부터 2000년 11월 1일까지 도시 유입지에 등록된 농촌 노동력 인구는 1.31억 명에 달한다.¹⁰⁾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노동력의 지역간·부문간 이동은 임금 수준에 따라 조절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은 단일한 노동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다. 그 비현실성은 중국의 도시 국유 및 집체기업에서 잘 나타난다. 가령, 국유기업 및 집체기업에서 대량의 감원조치가 취해졌던 1990년대 중·후반기에 두 부문의 실질임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국유 및 집체 부문의 임금 수준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상정하고 있는 노동시장과 다른 별도의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형성되었던 국유 부문의 독점적 지위, 농촌 노동력의 도시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형성된 호구제도, 개혁개방 이후 국가의 연해 지역 우선 발전전략 때문에 형성된 지역간 심각한 불균등 발전 수준 등과 같은 '비경쟁성' 요소들이 중국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고 노동시장을 분할하며, 통일적인 노동시장의 형성을 가로막는다. 중국에서는 서로 다른 소유제 간의 노동시장 분할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국유부문의 노동시장 분할이 가장 엄중한 것으로

10) 10년마다 조사되는 인구센서스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동인구는 향, 진, 가도에서 반 년 이상 거주한 인구만을 지칭하기 때문에 단기 이동인구는 제외된다. 중국은 2000년부터 1개월 이상 농촌 밖으로 나간 이동인구를 조사하고 있다.

알려져 있다.¹¹⁾ 또한 지역간 노동시장 분할 현상도 심각하다. 1995~2002년 동안 5개 지역의 실질 임금 수준의 편차 추이를 분석한 한 보고서는 5개 지역간 실질임금 편차는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 내 편차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지역 내부의 노동시장은 점차 통일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노동시장이 형성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¹²⁾ 이처럼 지역간 임금 편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지역간 불균등 발전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 당국이 취해 왔던 연해지역 우선 발전전략 때문에 고도성장을 달성한 연해 지역과 저성장의 상태에 놓여 있는 중서부 내륙 및 동북 지역의 실질임금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비경쟁성 요인과 노동시장의 작용 등 복합적 요인들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노동력 공급 과잉 속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4년 중국의 언론에서 광둥(廣東) 성 주강(珠江) 델타 지역의 ‘농민공 부족’(缺工, 民工荒) 현상이 집중적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그 지역의 농민공 부족 현상은 무엇보다 저임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주강 델타 지역에는 이윤이 적게 나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 더구나 도시 호구가 없는 농민공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임금 및 사회보장 면에서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고, 농민공의 임금 수준은 1,000위안(元) 정도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거의 오르지 않았다. 노동력 이동에 따른 비용 문제를 고려할 때 농민공이 저임금에 적극적인 반응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다음, 노동시장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인적자본에 대한 보상 정도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하자. 잘 알려져 있듯이 과거 계획경제 체제하의 중국에서는 임금 수준과 교육 정도의 상관관계는 매우 약했다. 정선노동과 육체노동의 임금 격차는 미미했고, 경제적 보상체계는 정치적 태도와 충성에 따라 결정되는 승진 체계와 연계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도시 노동자에 대한 적지 않은 조사 연구는 교육에 대한 임금 보상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국유 부문보다 비국유 부문에서 그 보상 정도는 더욱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¹³⁾ 2000년 광둥성 중산(中山) 시의 노동자 1,505명을 무작위

11) Meng Xin, *Labor Market Reform in Chi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蔡昉·都陽·王美艷, 『中國勞動力市場轉型與發育』, 商務印刷館, 2006, p.177.

12) 蔡昉·都陽·王美艷, 『中國勞動力市場轉型與發育』, 商務印刷館, 2006, p.176.

13) Wu, Xiaogang and Yu Xie, “Does the Market Pay Off? Earnings Returns to Education in Urban Chin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68(June 2003), p.426.



로 선출하여 그 중 1,315명을 인터뷰한 한 조사보고서도 대졸 학력의 경우, 교육에 대한 보상은 국유 및 비국유 부문에서 모두 정(+)¹⁴⁾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만, 그 보상 정도는 비국유 부문이 국유 부문보다 더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⁴⁾ 국유 부문의 경우 당원 신분과 소득 수준의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등 여전히 정치자본에 대한 임금보상 시스템이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위의 조사 결과는 기업의 소유제를 불문하고 인적자본에 대한 노동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 임금차별은 중국의 노동시장에서 비경쟁성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는 또 다른 한 증거다. 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도시노동자의 성별 임금격차는 1988년 0.84에서 1995년 0.82로 저하했다. 국유 부문과 비국유 부문 모두 성별 임금격차가 존재하지만 국유 부문의 성별 임금격차는 비국유 부문의 성별 임금격차보다 훨씬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⁵⁾ 이 점은 남녀평등을 강조했던 과거 계획 경제 체제의 이데올로기와 제도적 유산이 개혁개방 이후 국유 부문에서는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시 노동시장에서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는 주로 동일한 업종 내에서 발생하고, 그 격차를 인적자본으로 설명할 수 있는 비율은 12%밖에 되지 않는다는 한 보고서¹⁶⁾는 개혁개방 시기 성적 차별을 강조하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전통적 유교 이데올로기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향후 중국 노동시장 발전 전망

<표 1>에서 나타나듯이 2014~2017년까지 노동력 공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노동시장 발전 정책은 한편으로는 고용 증대에 유리하도록 유연한 노동시장을 발전시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 노동력의 도시 유입은 적절하게 조절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질 전망이다.

14) Zhang, Xiaowei, "Labor Market Segmentation and Income Inequality in Urban China," *The Sociological Quarterly*. Vol.43, No.1. 2002, p.39.

15) Maure-Fazio, Margaret, Thomas Rawsky and Wei Zhang, "Inequality in Rewards for Holding Up Half the Sky : Gender Wage Gaps in China's Urban Labor Market 1988-1999," No.41(January 1999); 蔡昉·都陽·王美艷, 『中國勞動力市場轉型與發育』, 商務印刷館, 2006, p.227에서 재인용.

16) 蔡昉·都陽·王美艷, 『中國勞動力市場轉型與發育』, 商務印刷館, 2006, p.234.

그런 면에서 노동력 이동을 방해하고 도시 내부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대하며, 사회적 불안정성이 확산되는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호구제도는 최근 들어 폐지 여론이 만만치 않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유 부문 및 비국유 부문의 노동시장 통일 문제는 임금 결정 주체가 정부로부터 기업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힘에 의해 달성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자본주의 국가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별도의 '내부 노동시장(internal labor market)'을 가지고 있듯이 중국의 상당수 국유기업도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부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유기업에 대한 노동시장의 영향은 크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소유제별 노동시장의 분할 상태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간 노동시장 통일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이 문제는 무엇보다 정부 당국의 지역 발전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중국 당국은 서부 대개발전략, 동북 지역 진흥계획 등을 통해 연해 지역보다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펴하고 있지만, 그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도 인정하듯이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지역간 노동시장 통일 문제는 사회보장제도와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아직 농민과 도시민을 다 포

〈표 1〉 2001~2050년 노동인구 증가 추세

(단위 : 만 명)

연도	노동인구 증가량		연도	노동인구 증가량		연도	노동인구 증가량	
	15~64세	15~59세		15~64세	15~59세		15~64세	15~59세
2001	1,091.06	1,062.56	2010	820.64	397.95	2019	-166.81	182.15
2002	1,377.68	1,336.25	2011	758.65	457.95	2020	-264.27	160.74
2003	1,325.40	1,323.00	2012	681.34	251.76	2025	197.84	-691.70
2004	1,259.59	1,185.22	2013	593.84	175.04	2030	-640.94	-815.58
2005	1,208.33	1,113.06	2014	453.91	-6.82	2035	-887.84	-472.32
2006	1,248.83	1,129.62	2015	190.34	-165.67	2040	-600.73	-403.20
2007	956.24	763.21	2016	208.05	-55.92	2045	-491.07	-570.42
2008	920.05	670.35	2017	-37.41	-165.35	2050	-567.98	-846.33
2009	885.01	624.69	2018	-57.55	-218.78			

자료 : 張車偉, 「擴大與促進就業的思路與對策」, 陳佳貴·王延中 主編, 『中國社會保障報告(2001~2004)』(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4.

〈표 2〉 중국 취업자수 증감

(단위 : 만 명, %)

연도	취업자수 및 전년대비 증감		취업자수 및 전년대비 증감		산업별 취업자수 및 비율					
	취업자수	전년대비 증감	취업자수	전년대비 증감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취업자수	비율	취업자수	비율	취업자수	비율
2001	73,025	+940	23,940	+789	36,513	50.0	16,284	22.3	20,228	27.7
2002	73,740	+715	24,780	+840	36,870	50.0	15,780	21.4	21,090	28.6
2003	74,432	+692	25,639	+859	36,546	49.1	16,077	21.6	21,809	29.3
2004	75,200	+768	26,476	+837	35,269	46.9	16,920	22.5	23,011	30.6
2005	75,825	+625	27,331	+855	33,970	44.8	18,084	23.8	23,771	31.4
2006	76,400	+575	28,310	+979	32,561	42.6	19,225	25.2	24,614	32.2

자료 : 國家統計局人口和就業統計司, 勞動和社會保障規劃財務司 編, 『2006中國勞動統計年鑑』, 中國統計出版社, 2006, p.7. 2006년 통계는 2006년 중국노동사회보장부 통계공보.

〈표 3〉 본지 노동자와 농민공의 시간당 임금 차이

(단위 : 위엔)

	상하이(上海)	우한(武漢)	선양(沈陽)	푸저우(福州)	시안(西安)
시 노동자 시간당 임금	8.3	4.8	4.6	6.3	4.4
농민공 시간당 임금	5.9	2.8	3.7	4.0	3.3

자료 : 蔡昉·都陽·王美艷, 『中國勞動力市場轉型與發育』, 商務印刷館, 2006, p.86.

괄하는 통일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어 노동력 이동은 현저하게 제약된다. 게다가 호구제도가 엄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간 노동력 이동은 자유롭지 못하다. 결국 지역간 노동시장의 분할 문제 역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당국이 최근 들어 강조하고 있는 다음 몇 가지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업, 농촌, 농민 등 소위 '3농' 정책,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중국 당국이 부쩍 강조하고 있는 3차산업 발전 정책, 최근에 제정된 근로계약법이 각각 1, 2, 3차 산업의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을 두고 관찰하고 조사·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장기 근로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계약법은 법 제정 과정에서 중국의 일부 학자 및 기업들로부터 고용유연성과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장된 바 있다. **KLI**